목사와 성도의 영원한 기쁨

성경말씀: 고후1:12-24

미국 여행: 네 번 비행기를 탄다. “어쩌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한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가?
1982년 9월 한국을 떠날 때에는 성경 번역, 목회 등을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런데 28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더욱이 목사라 불리며 목회를 하고 있다. 두려운 일이다.
2010년 1월에 여기 8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같은 곳에 있으면서 교회를 한다.
왜 이런 교회가 필요할까? 왜 우리는 지금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여기에서 모이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지금은 잠시요, 앞으로 영원이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AD 53년경(회심 33년경, 1차 여행 45년경)
17장: 아테네에서의 사역
18장: 고린도에서의 사역, 고린도, 인구 20만 명, 그 당시의 빠리, 유행과 죄악의 도시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 않았다. 우상 숭배(여신 숭배), 음란한 일,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움.
바울과 동료들의 열심을 통해 심지어 두 명의 회당장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반대가 극심하므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심(18:10).
유대인들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재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여기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다(AD 55년경).
고린도 전서의 교회 문제: 분쟁, 음행, 법정 소송,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의 제물, 남자와 여자의 복장 문제, 주의 만찬 문제, 은사 문제(방언), 부활, 성도들을 위한 헌금
그의 원래 계획: 마케도니아(빌립보)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는 것(고전16:5-6).
그의 두 번째 계획: 먼저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가고 그 뒤에 다시 고린도로 와서 유대로 가려 함(고후1:15-16).
그런데 이 두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문제가 생김. ★★★ 이게 교회의 현실이다. 부모를 배반하는 사례와 비슷하다.
사도 바울의 심정(고후1:14):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 우리가 너희의 기쁨
시시비비는 하나님 앞에서 하자.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원한다. ★★★

심판 날 다시 만날 목사와 성도들

1. 목사와 성도는 이 땅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낳고 입혀 주고 살게 해 준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바른 것을 가르쳐 준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자발적 관계
목사는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성도는 다 형제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 땅의 지역 교회에서는 목사가 양에게 영적인 꼴을 준다.
그래서 양들은 목사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사와 양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구원 받은 뒤에는 행위에 따른 보상의 심판이 있다.
심판의 때가 가깝다. 노아의 날, 주의 날의 특징: 지진, 기후 변화, 전쟁, 기근, 이단, 양극화, 진화론, 유전자 조작, 온 세상이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다. ★★★
우리는 모두 휴거의 소망을 갖고 산다. 살전4:16-18 ★★★
휴거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믿음 이후의 행위에 대해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
고전3:10-15
목사가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으면 각 사람이 그 기초 위에 행위로 보상을 쌓는다.

불이 그 행위를 심판한다. 바로 그 날에 목사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나 회계보고를 한다. ★★★

목사와 성도들의 회계보고

1. 목사

하나님이 맡겨 주신 자들을 열심히 진실하게 돌아보고 먹였는가? 수를 따지지 않는다. ★★★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었는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구원, 성화, 재림, 부활, 교회, 인격의 변화, 그리스도의 심판석 벧전5:2-3

심판석에 있을 성도들이 증인이다.

여기서 목사의 보상이 크면 그것이 성도들의 영광이요, 기쁨이다(영원한 영광이요, 기쁨이다).

2. 성도들

목사의 진심어린 인도와 권고에 귀를 기울여 구원을 받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었는가?

목사의 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난 다음에 영광이다(십자가 다음에 왕관이다).

겸손한 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자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킹제임스 성경 ★★★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을 내었는가? 희생을 했는가?

영혼의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았는가?

성도들의 보상이 크면 그것이 목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 ★★★

3. 불신자

이 심판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불신자들의 심판이 열린다(흰 왕좌 심판, 계19).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 심판을 받고 불 호수로 들어간다.

거기에는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들어간다. 여기에도 등급이 있다.

이 교회에 발을 담근 사람이 이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에게도 불행이요, 목사에게도 불행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도를 가르칠 때에 귀를 기울여 듣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기 바란다. ★★★

교회는 좋은 말 들으러 오는 장소가 아니다(철학, 긍정, 격려 등).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위로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는 곳이다.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의 핵심: 선한 양심(12절)

Conscience: Con 함께 한다. science: 알다

양심은 우리의 영과 함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를 봉인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후1:21-22).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성령님을 따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바른 것을 먹이려고 애를 쓴다.

문제: 어느 목사나 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말이 성경과 일치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다. ★★★

성도들 안에도 성령님이 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성령님의 중재하는 양심의 관계이다.

그래서 목사는 영혼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고후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스승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이 목사의 말의 진정성을 알고 따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

결론

교회가 불어나려 한다.

교회에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늘 가진 자, 아는 자, 배운 자, 연륜이 있는 자에게서 생긴다. ★★★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가 서로에게(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영원한 기쁨이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심판 날에 회계 보고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